

## 벼 늦심기 시 육묘일수에 따른 생육 및 수량

정종태<sup>1\*</sup>, 윤여태<sup>1</sup>, 이재철<sup>1</sup>, 이순계<sup>1</sup>, 이광원<sup>1</sup>, 나승연<sup>2</sup>

<sup>1</sup>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sup>2</sup>충남 서천군 서천농업기술센터

### [서론]

벼 늦심기는 이모작 등 작부체계에 의한 의도적인 부분과 가뭄 등 재해에 의한 비의도적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최근 빈번한 봄 가뭄에 의한 물사정 악화로 비의도적인 늦심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7년 심각한 봄 가뭄으로 인해 서해안 간척지에서는 염농도가 0.7%까지 높아졌는데, 이앙 후 모가 계속 고사되어 7월 초까지 3회 이앙한 농가가 적지 않았다. 농가에서는 늦이앙시 파종을 실시한 이후 충분한 물공급이 되었을 경우엔 육묘일수에 관계없이 지체없이 이앙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육묘일수에 따른 생육 및 수량 등 기본 정보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6월 하순 이앙 시 육묘일수를 달리하여 벼의 생육과 수량을 조사하였으며, 늦이앙 하는 농가들에게 영농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 [재료 및 방법]

이 시험은 2014년도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시험품종은 운광벼로 5일모에서 5일 간격으로 60일모까지 육묘하였다. 60일모는 4월 26에, 5일모는 6월 20일에 파종이 되었고 6월 25일에 동시 이앙을 실시하였다. 상자당 파종량은 180g이었으며 30×12cm로 주당 5~7본 손이앙 하였다. 비배관리는 만기재배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주요한 조사항목은 묘소질, 생육 및 수량이였다.

### [결과 및 고찰]

육묘일수가 길어질수록 초장, 엽수, 건물중, 묘출실도가 커지는 경향이였다. 출수기는 5일모에서 8월 29일이었으며 30일모에서는 8월 23일로 육묘일수가 길어질수록 출수가 점차 빨라지는 경향이였으나 35일모에서는 8월 25일, 60일모엔 9월 1일로 출수가 다시 늦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불시출수는 25일모까지 2% 이하로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30일모 이상에서는 10.3%~42.7%까지 급격히 높아졌다. 간장은 10~15일모가 74cm로 가장 컸으나 육묘일수가 증가될수록 작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등숙비율은 육묘일수가 증가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으로 45일모이상에서는 80% 미만이었다. 수량과 완전미수량은 40일모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었으나 45일모 이상에서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수량과 완전미수량은 출수기 및 불시출수율과 고도의 부의상관을 나타내었다.

\*주저자: Tel. 041-635-6050, E-mail. chts6991@korea.kr